

“불교문화 박물관서 나와야 할 때”

반영규 불교음악협회장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서 강조

“불교계, 특히 불교음악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 모두가 음악을 비롯한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반영규 불교음악협회 회장(사진)은 6월 13일 서울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이 개최한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1 - 불교와 음악’에서 불교계의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반 회장은 이날 강좌에서 “1960~1970년대 찬불가운동을 시작할 때에 비해 지금은 외형적인 면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불교음악은 대중과 괴리되고 있다”며 “승속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회장은 “개화기를 전후해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음악이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새로워지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 회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이른바 찬불가는 1000여 곡을 넘고 불교 노래의 작사·작곡에 참여한 분은 각각 100여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 회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불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분은 열 손가락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라며 “불교음악에 전념하는 전문 음악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회장은 이날 찬불가 등 현대 불교음악의 활성화에 △사찰 작은 음악회 개최 △불교교성곡 공연 △전문악단 육성 △승우대생 대상으로 한 불교계 장학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사찰 작은음악회는 새 불교음악을 공개하는 마당, 각 사찰 합창단이 역량을 발휘하는 마당, 신인 불교음악인이 첫 선을 보이는 마당

과 같이 불교음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구성돼 각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다. 또 불교교성곡 공연은 춘향전·심청전과 같이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명절에 정기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것이다.

반 회장은 “현재 노래방 등에는 찬불가가 구비돼 있지만 부르는 이조차 없다. 또 불충행사 일환으로 불교음악이 나오지만 과연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다”며 “불교방송과 불교TV 등에서 찬불가, 불교공연 등을 보다 많이 송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반 회장은 “불교의 중흥은 불교문화의 창달(暢達)에 달려 있다”며 “박물관에 진열된 옛 문화재 같은 불교를 벗어나 온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불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은 22일 불교와음악 세 번째 강좌로 이보형 한국전통음악연구원장의 ‘우리 민속 속의 불교음악’을 개최했다. (02)742-4288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총담 스님 추모 영산재 봉행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15일 경내 등공사리탑전에서 총담 스님 열반 제12주기 추모영산재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법어에서 “총담 스님은 불법중흥과 국민안락을 위해 불은에 보답하고자 육신등공하신 분”이라며 “항상 화합하라 강조했던 스님의 큰 뜻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총담문도회장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총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한국불교의 큰 공덕이다. 이 자리가 성역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지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총담 스님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과,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 불자들의 화합과 불교홍명의 세가지 원력을 세우시고 무생법인의 도리를 깨달아 열반에 드셨다”고 말했다.

한편, 총담 스님은 1960년 묵담 스님에게 구족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했다. 일생 동안 수행정진과 대승교화 등 보살도를 실천해 온 스님은 1998년 6월 27일 새벽 감로사에서 평소 불교홍흥과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소신공양했다.

관련기사 14면 ·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조계종 “아이티 교육시설 설립에 사용”

조계종은 6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이티 지원피해 돕기 모금액 10억8834만1793원 중 아이티 현지 의료봉사에 7250만원, 유네스코 북구지 원금으로 1만 달러, 중국 청하이성 지원 구호금으로 5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아이티 모금액 중 남은 금액은 아이티에 교육시설 등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중신회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법회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불교정책기획단은 7월 중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6·2 지방선거 불자 당선자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행사는 불자 당선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불교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 등을 당부하고자 마련된다. 조동섭 기자

조동종 고훈천도수륙재·선상용왕재 봉행

인천과 중국 연운항을 잇는 뱃길에서 7일간 천도재와 용왕재가 봉행됐다.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5월 29일~6월 4일 서해 해상에서 고훈천도수륙재 및 선상용왕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해안에서 순직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와 장애’ 여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가)는 7월 3~4일 고양 금륜사에서 ‘불교와 장애의 문제’를 주제로 2010년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불교에서 본 정신적 장애론(최홍동)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장애(이혜숙) △정의로서의 불교(박경준)가 발표된다. (02)357-9031 조동섭 기자

용암사 단오 맞이 나눔의 산사음악회 개최

서울 용암사(주지 관오)는 6월 16일 경내에서 단오 맞이 나눔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후에는 지역 불우이웃에게 백미 300포, 라면 100박스가 전달됐다. 행사에는 광진구사암연합회장 법경 스님, 국회의원 권택기·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보리방송모니터회 BBS 4대강 광고 중단 촉구

BBS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이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송출해 교계 단체들이 중단을 촉구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사찰생태연구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6월 15~16일 BBS 불교방송에 4대강 개발 홍보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BBS는 4월 15일~5월 3일 광고가 송출됐으나 자체 회의를 통해 이미 광고를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상언 기자

해병대 군법당 호국승룡사 16일 창건법회

해병대 1사단 교육단 군법당인 호국승룡사가 6월 16일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갖고 개원했다. 완공된 승룡사는 법당 709㎡(약 215평) 요사채 119㎡(약 36평) 규모로 지어졌다. 법당 건립은 2008년 9월에 터를 닦기 시작해 38억원을 투입, 16개월 만에 완공됐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신도연수 체계화 절실

고명석 연구원 포교정책연구회서 제안

신도는 출가자와 함께 종단 구성원이지만 정작 교육에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도 한 명 한 명이 불자로서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함에도 조계종 내에서는 신도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효율적·체계적인 포교를 위해 신도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6월 17일 템플스테이정보문화센터에서 열린 포교원 제39차 포교정책연구회에서 ‘신도 연수프로그램 어떻게 설계해야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조계종의 신도 연수가 정당한 인재상이나 연수 준비와 시행에 따른 매뉴얼이 없을 뿐더러 인재상·신도상도 정

립되지 않은 채 연수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포교 강화를 위해 신도 연수가 △실무자 연수 매뉴얼 개발 △강사 인력 풀 구성 △연수 평가서 개발 △교재 및 교보재 개발 △연수교육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박희승 총괄부장은 토론에서 “(가칭)종단 연수교육 실무협의회 등 기구를 만들어 신도 연수를 체계화해가자”고 말했다.

총무원 기획실 이상봉 팀장은 “신도 연수 프로그램에 앞서 신도 의식 및 실행 현황 조사를 통해 교육 수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원효 성사 탄신 1393주기 다례재 봉행

경산 제석사(주지 적연)는 6월 15일 경내 원효성사전에서 제1393주기 원효 스님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최병국 경산시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끊고 바른수행으로 진리를 구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오직 수행의 길을 찾아 수녀(修女)에서 비구니로,
40년의 세월을 보낸 세계적인 석학,
일야 스님의 투철한 삶 이야기!!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편자 일야 스님!
나의 삶, 나의 수행, 나의 학문

일야 스님은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 서울 명동 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에 입회, 가톨릭 신학원을 졸업, 계성여중 수녀교사로 재직 중 수녀원을 탈퇴, 조계종 비구니선원 석남사 법보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출가, 윤문승가대학을 졸업, 태국 위백아승 위빠사나 명상수도원과 미얀마 마하시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 2년간 수행, 미국 New York Stony Brook 주립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 University of the West 비교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LA Lomera 불교대학 교수, LA 갈릴리 신학대학원 불교학 강사를 지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 법전 스님과 석남사 인종 스님 | 무슨 사연으로 출가 하셨나요? | 마이클 잭슨의 죽음 |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맥주!

깨달음을 찾는 이에게

우리 모두 다

일야 지음 | 국판 변형 | 356쪽 | 값 12,000원

민족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과빌리는 1131호 | 전화 02-732-2403~4 | 이메일 minjoksa@chol.com